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8. Vol. 13, No. 2, 391 - 410

## 가정폭력행위자의 특성과 폭력중지 과정변인에 대한 질적 연구

이 명 옥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상담센터

하 정 희<sup>†</sup>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상담센터

박 정 민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가정폭력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수행하였다. 특히 가정 폭력의 원인과 폭력당시의 감정을 살펴보고, 가정폭력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변화된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고소되어 범원으로부터 보호처분 4호 보호관찰과 7호 상담위탁 명령을 받고 집단 상담에 참여한 가정폭력행위자 10명을 대상으로 하여 질적 면접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을 주제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가정폭력 행위자들이 폭력을 사용하는 이유로 아내와의 다양한 갈등, 성격 요인, 환경적 요인의 3개 범주를 발견하였고, 이 가운데 아내와의 다양한 갈등이 가장 주된 범주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가정폭력 당시의 감정은 분노감, 자제력부족, 창피함의 3개 범주로 나뉘었다. 셋째, 가정폭력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변화된 점으로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제력이 생긴 점, 정서표현방식의 변화, 분노감정의 정화, 사고방식의 변화, 행동양식의 변화 등의 5개 범주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자의 역할에 대해 논하였고,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가정폭력, 가정폭력행위자, 특성

오늘날 가족의 형태와 기능이 다양하게 변화 함에 따라 여러 가지 가정 문제 중에서 특히 가정 폭력이 중대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합리

적인 의사소통과 적절한 분노조절이 가장 부족한 사회 공간 중의 하나가 역설적이게도 가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가장 따뜻하고 정서적인 유대가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하정희, (134-031) 서울 강동구 성내 1동 456-5 동원아파트 201-903 , Tel: 011-366-6777, E-mail: hajung366@hanmail.net

긴밀해야 할 가정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위주의적인 의사소통과 정제되지 않은 감정표출은 수많은 가정폭력과 연관되고 있다(한국 형사 연구원, 2003). Gelles(1998)는 그 어느 장소보다도 '가정'에서 폭력이 많이 일어나며, 타인보다는 가족에게 폭력이나 폭행을 당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한다. 가장 친밀하면서도 상처받기 쉬운 가족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문제에 대해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가부장적인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 다른 누구에게도 간섭받기 싫어하며 또한 관여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에 가정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히 개입하고 더 나아가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효과적으로 돋는 일이야말로 우리나라 가정과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가 발표한 상담 통계에 따르면 여성의 이혼상담 사유는 가정폭력(36.6%, 10,261명), 성격차이 등 혼인을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33.8%, 1,166명), 남편의 외도(16.3%, 562명) 순이었다(주간 동향, 2007). 이렇듯 가정폭력은 부부관계를 해체시키는 주요인임을 알 수 있는데, 가정폭력은 인간의 삶의 현상 가운데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이다 (David, 2002/2003). 가정폭력 보호처분의 건수가 2001년 2,458명, 2002년 2,363명, 2003년 2,464명, 2004년 2,706명, 2005년 2,503명으로 나타나 가정 내에 상당히 많은 폭력이 행해지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으며(보호관찰 통계연보, 2006), 또한 전체 가정폭력 중 배우자에 의한 폭력이 2002년 83.0%, 2003년 83.3%, 2004년 88.1%, 2005년 85.1%를 차지하여(여성가족부, 2005), 가정폭력이

주로 배우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가정폭력 발생사건수는 최근까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가정폭력 방지법 시행이후 가정폭력을 더 이상 가정 내 사적인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조치를 받으려는 사회적인 인식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유태수 2003). 이는 전국의 가정폭력 상담건수가 2000년에 75,723건이던 것이 2003년에는 195,286건으로 대폭 증가한 추세를 통해서도 설명가능하다.

행위자들은 폭력적인 성장배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유태수, 2003; 장희숙, 2003). 또한 가정폭력이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된다는 것은 가장 비극적인 결과다. 폭력에 관한 연구들이 일관성 있게 동의하고 있는 바, 각 세대가 폭력에 대한 양식과 규칙을 이어받음으로써 가정은 자녀들에게 폭력의 훈련장으로 기능한다. 폭력으로 자란 아이들은 폭력을 하나의 문제해결 방안으로 받아들이기 쉽고 가족 안과 밖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경향이 더 많다(김유숙, 1998, p. 35). 다시 말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폭력이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자란 아이들은 결혼을 해서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가정폭력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폭력이 연루된 부부간 문제는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모두의 공동체적 삶을 깨고 인간다운 삶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가족 구성원간의 범죄와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이경순, 2004). 이에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원인을 파악하고 개입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가정폭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정 폭력 행위자에 대한 특성연구나 이들 행위자의 가정특성을 살펴본 것들이 대부분이다. 우선, 폭력 행위자들의 특성을 연구한 학자들의 이론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폭력남성이 우울한 성향이 있고(Hamberger & Hastings, 1986; Rosenbaum & O'leary, 1981; Saunders, 1984), 자존감이 낮아(Elbow, 1977; Gondolf, 1985; Rosenbaum & O'leary, 1981; Saunders, 1984; Taylor, 1984; 유태수, 2003; 장희숙, 정정호, 김예성, 변현주, 2003), 상대방의 비판에 예민하게 반응하며(Saunders, 1984), 이러한 낮은 자존감이 그들의 심리적 상처와 공포 체험들과 결합되면서 즉시 분노감정을 일으키게 되며, 그러한 감정들은 공격행동으로 전환된다(Rosenbaum & O'leary, 1981). 또한 행위자들의 아내에 대한 질투심과 소유욕의 정도도 병리적이다(Bowlby, 1984; Coleman, 1980; Davis, 1990; Saunders, 1984).

이들은 이밖에도 수줍음이 많고(Saunders, 1984),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Davis, 1990)이 있고, 사회 지지망으로부터 고립되어있으며(Davis, 1990), 충동조절 능력에 결함(Davis, 1990; Sonkin, 1985)을 보인다. 또한 표현능력이 부족하고(Ney, 1978), 자기주장을 잘 못하며 (Dougals, Alley, Daston, Svaldi-Farr, & Samson, 1984; Maiuro, Cahn, & Vitaliano, 1986; Rosenbaum & O'leary, 1981), 상대방을 탓하거나 (Davis, 1990; 유태수, 2003), 문제의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특성이 있으며, 분노의 대상을 전위한다던가 (Davis, 1990), 갈등해결기술과 문제해결 기술(장희숙, 정정호, 김예성, 변현주, 2003) 부족 등의 특

성을 나타낸다. 이들은 결혼생활에 대하여 비현실적이고 경직된 기대를 하며, 스트레스를 크게 지각하여 결혼만족도가 일반인들보다 낮은 편이다. 한편, 가정폭력행위자들은 주로 아내를 대상으로 폭행을 일삼는데(장희숙 등, 2003), 이에 대해서 Martin(1988/1998)은 이들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여 아내의 순수한 행동도 가장인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으로 파악하였고 Ney(1978)는 표현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아내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았다(Ney, 1978).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폭력행위자들에게서는, 분노와 적대감, 충동조절의 어려움, 질투심과 소유욕, 우울, 폭력에 대한 허용도, 비현실적이고 경직된 기대, 낮은 자존감, 낮은 결혼만족도, 빈곤한 사회적 지지체계, 자기주장의 어려움, 갈등해결전략과 문제해결 기술의 결핍, 의사소통의 어려움, 심한 스트레스, 폭력에 노출된 성장환경 등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이와 같이 대부분 가정폭력행위자들의 특성을 살펴본 연구들이 주를 이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연구조차도 드문 현실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가정폭력행위자들이 경험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실례를 바탕으로 했기 보다는 주로 양적인 접근방법으로 그들의 생활을 파악하여 해석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행위자들이 직접 부딪히고 생활하는 현장경험과 관련지어서 이들이 폭력을 행사하게 된 주된 원인 뿐 아니라 폭력당시의 감정과 폭력이 줄어드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정폭력 행위자들의 폭력 당시 감정으로 유

태수(2003)는 폭력 당시에 행위자들이 감정을 폭파하는 특성을 보이고 ‘화’와 ‘무시받는 감정’ 및 ‘분노감’과 ‘질투심’ 등을 많이 느끼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Rosenbaum과 Bennett(1988)은 사실이나 상상에 의한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와 우울 정서가 폭력적인 행위로 이어진다고 설명하였다. 행위자들의 무기력감과 우울 수준이 증가할 때, 특히 배우자로부터 물리적 별거의 위협을 받을 때, 남성들은 배우자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강하게 하게 된다. 이렇듯 가정폭력 행위자들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볼 때, 그들의 특성을 살펴보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가정폭력행위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경험을 밝힌 연구 즉, 폭력 당시의 감정을 살펴보거나 가정폭력이 줄어드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김현희, 2006). 다만 유태수(2003)는 가정폭력 행위자들이 배우자의 태도에 따라 그들의 의식변화가 달라진다는 연구를 소개한바 있다. 즉, 그는 가정폭력행위자들의 폭력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그들의 의식에 변화가 나타났는데, 특이한 점은 행위자가 집단상담 받는 것에 대하여 배우자의 태도가 긍정적인 경우는 행위자가 상담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폭력행위의 문제점을 찾아가는 반면, 배우자의 태도가 부정적인 경우에는 행위자가 상담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폭력행위의 원인을 배우자 쪽에서 찾으려하는 등 의식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그의 연구에서 가정폭력방지법의 적용 시에 경찰이나 검찰, 법원의 태도가 가정폭력행위자들의 변화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즉, 비교적 온당한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행위자의 경우에는 집단 상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반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행위자의 경우는 가정폭력방지법 적용에 대한 강한 반발로 인하여 의식변화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앞으로도 가정폭력행위자들의 폭력이 줄어드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좀 더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행위자들이 직접 부딪히고 생활하는 현장경험과 관련지어서 이들이 폭력을 행사하게 된 주된 원인 뿐 아니라 폭력당시의 감정과 폭력이 줄어드는 과정을 살펴보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행위자들이 폭력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둘째, 가정폭력행위자들이 폭력 당시에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셋째, 가정폭력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이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가정폭력행위자를 위한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이나 이들의 폭력행위를 감소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상담 과정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방법

###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사법부의 보호처분인 수강명령을 받고 상담 위탁되어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충북지역에 거주하는 가정폭력 행위자 10명이다. 전체 참여자는 남자이며, 연령분포는 37세부터 60세까지로 40세 이하가 1명, 40~50세가 3명, 50~60세가 6명이었다. 결혼지속 년 수를 살펴보면, 5~10년이 2명, 11년~20년이 2명, 21~30년이 5명, 30년 이상이 1명이었다.

## 도구

**가정폭력 행위자의 면접질문지** 면담을 위해서 반 구조화된 면접 질문지를 사용하였는데, 이 질문지는 인적사항을 포함하여 King & Emmons (1990)가 제안한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정서표현질문지'와 '가정폭력 행위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등의 논문을 참고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문항 내용은 '폭력행위자들의 주된 스트레스의 내용',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법', '폭력을 행할 때의 감정들', '폭력행위자들이 생각하는 폭력의 원인', '폭력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변화된 점' 등이다.

##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하여 초기에 집단프로그램 15회기(45시간)를 마친 후 심층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개인면담 시에는 연구취지를 각각 설명하였고 이에 응함으로써 면담이 이루어졌다. 개인면접 실시 전에

이루어졌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패쇄형 집단 상담으로써 가정폭력 전반에 걸친 교육과 함께 심리적인 문제를 반 구조화된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집단 리더 1명과 보조리더 1명, 관찰자 3명이 참여했으며, 어떤 주제든 상관없이 매 집단을 시작하기 전 30분 정도 '점검하기' 시간을 가졌고, 이 때 한 주간 동안 느낀 감정에 대해 '감정표'를 보면서 찾아보도록 하였다. 또한 마치기 전 30분 정도 '소감나누기'를 통해서 그날 집단 중에서 느꼈던 감정을 자각하고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집단상담을 모두 마친 후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한 가정폭력 행위자 10명과 직접 1 : 1 개인 면담을 하였다. 면담진행 중에는 각 질문의 대답에 대한 더욱 더 풍부한 설명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후속질문을 하면서 융통성 있게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충북지역의 가정폭력 전문상담소에서 진행되었으며, 면담시간은 평균 1시간에서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7년도 6월에서 9월까지 약 3개월 정도에 걸쳐 면담과 축어록이 완성되었다. 면담은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고 면담 중에 주요 내용이나 참여

표 1. 참여자 인적사항

사례	연령	연령 (배우자)	학력	직업	결혼기간	비고
A(4, 7호 처분)	60세	54세	중졸	주유원	35년(초혼)	
B(4, 7호 처분)	54세	51세	고졸	설비기사	18년(재혼)	입양아
C(상담조건부 기소유예)	54세	미확인	고졸	회사원	25년(초혼)	
D(상담조건부 기소유예)	53세	52세	고졸	무직	24년(초혼)	과거 의류업 종사
E(4, 7호 처분)	51세	미확인	고졸	건설업	26년(초혼)	
F(4, 7호 처분)	51세	43세	초졸	자동차 정비	24년(재혼)	
G(4, 7호 처분)	49세	44세	초졸	건설노무	28년(초혼)	
H(4, 7호 처분)	47세	미확인	고졸	장비임대	10년(사실혼)	부채
I(4, 7호 처분)	44세	37세	고졸	회사원	15년(초혼)	
J(1, 4, 7호 처분)	37세	42세	중졸	자동차 정비	9년(아내재혼)	이혼

자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면접 분위기 등의 특이 할 만한 사항은 질문지에 기록해두었다. 녹음 내용은 누락된 부분 없이 기록하여 연구대상자의 느낌이나 생각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충분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자료를 많이 확보하였다.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이름이나 지명은 삭제하고 원고 위쪽에 번호를 붙여서 참여자를 구분하였다. 면접분량은 개인 당 A4용지 10장에서 25쪽이었고, 전체 분량은 158쪽 이었다.

### 자료분석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1 : 1 면접 자료를 통해 얻은 개개인의 유사성과 상이성이 드러나게 함으로써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구조화된 질문지의 큰 주제와 관련된 면접 자료를 정리하고 각 영역 별로 개념과 범주로 유목화 하여 원자료를 축약하는 코딩을 실시한 후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의미한 주제를 발견해나가는 주제 분석 방법(Patton, 2002)을 적용하였다. 이는 가정폭력 행위자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에서 자신과 그들의 주변세계에 대한 경험, 개념, 지각, 이해 등에 내재해있는 의미와 경험을 이해하기에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에는 본 연구자와 상담심리 전공 박사 1명, 석사 1명이 함께 참여하였다. 세 사람은 각자 개별 면접 자료를 읽고 면접 자료를 영역별로 개념과 범주로 유목화 하여 원자료를 축약하는 코딩작업을 하였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분석을 한 후에 세 사람은 총 4차례에 걸쳐 모임을 가지면서 차이가 나는 코딩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합의를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된 코드북을 작성하였고 이 코드북에 근거하여 개별 면접 자료에 대한 재코딩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후 통일된 코드북의 각 항목에 각 사례의 해당 내용을 적었으며 유사한 내용끼리 묶고 분류하는 비교분석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전체 자료를 총 18쪽 분량으로 축약하였고 이 자료를 해석의 기초 자료로 삼았다.

### 결과

#### 가정폭력행위자들이 폭력을 행하는 이유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범주화 결과 가정폭력 행위자들이 폭력을 행하는 이유는 크게 아내와의 갈등, 성격적 특성, 환경적 특성의 세 범주로 나타났고, 구체적으로 아내와의 갈등에는 아내의 잔소리나 비난, 일방적으로 부인 탓으로 전가 등의 9개의 개념이 발견되었다. 성격적 특성에는 내성적이고 고지식하거나 융통성 없는 특성을 포함하여 총 5개의 개념이 발견되었고, 환경적 특성에는 편모아래 자랐거나 방임된 특성을 포함하여 총 4개의 개념이 발견되었다. 면접으로 얻은 자료를 통해 개념을 보다 상세화 하였다.

#### 아내와의 갈등

가정폭력행위자들이 폭력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로 대부분 ‘아내와의 갈등’과 관련된 내용을 가장 비중 있게 진술하였다. 그들은 아내의 잔소리

나 비난을 듣기 싫어하며 대부분 아내의 잔소리가 심하다고 말한다. 특히 자신이 의미 있게 여기는 가족에 대해 아내가 알아주지 않고서 오히려 비난조로 이야기 할 경우에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형수님은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신 분입니다. 총각 때 자격증 따는 과정에서 내가 포기하려고 할 때 형수님이 ‘이왕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해 보자.’면서 수업료를 주셨는데 그 후 합격된 거죠... 그런 형수님을 나쁘게 말하니까 듣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형수보다 자기가 더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것 같았고 하면 막 소리를

질러요...” (사례 C).

또한 가정폭력행위자들은 아내가 자신을 의심할 때 역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곤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내는.. 내가 두 시간만 눈에 안보이면 어디 가서 여관방에 누워있는 것 같이 느껴진데요 어디 가면 빨리 와야 돼 그러니까 막.. 차가 앞으로 가로막으면 욕하고 나도 모르게 짜증만 나고 그렇더라고.... 느긋해야 되는데....”(사례 A).

가정폭력행위자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내와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이를 대화

표 2. 가정폭력 행위자들이 폭력을 행하는 이유

범 주	개 넘	응답자수
아내와의 갈등	아내의 잔소리나 비난	7/10
	일방적으로 부인 탓으로 전가	2/10
	아내에 대한 역할 기대	4/10
	문제해결과정에서 아내와 의견 불일치	4/10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데 대한 불만	4/10
	아내의 음주에 대한 불만	5/10
	아내의 남편에 대한 의심	3/10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의심	3/10
	기타(경제적 갈등)	3/10
	내성적이고 고지식하거나 융통성 없음	3/10
성격적 특성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표현 안하다가 분노로 표출함	7/10
	충동성(‘욱’하는 심정)	10/10
	알코올 의존	5/10
	대화시도	1/10
환경적 특성	편모아래 자랐거나 방임	3/10
	학업 중도 포기	3/10
	가정에서 폭력상황 목격	1/10
	경제적 어려움	4/10
	근대문화 영향	3/10

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자주 다투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다. 본인 스스로도 부부간에 대화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끼기도 하였으나,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인의 탓으로 전가하는 특성도 발견할 수 있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 주어야지 속 시원해하고, 제가 하는 방식에서는 못 마땅해 하고.”(사례 J).

“부부간에 대화가 없는 거... 그게 모든 원인이 된 것 같아요.”(사례 H).

“서로가 자체를 해야 되는데 한쪽이 치우쳐서 그만 하려고 해도 우리 와이프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야”(사례 J).

가정폭력행위자들은 아내에 대한 불만을 특히 많이 보고했다. 이 가운데에 상당수가 아내의 음주에 대한 불만,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한 불만 등이었다. 면담을 한 가정폭력행위자의 아내 중 절반가량은 술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가정폭력행위자들은 자신들의 음주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아내의 음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많은 경우에 가정폭력행위자들은 아내가 집안일에는 소홀히 하고 집밖에서 술을 먹는 행동에 분노감을 표현하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다투게 되고 폭력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폭력적인 남성들이 아내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용통성이 없는 고정관

념을 가지고 있다(Martin, 1986; Morrison, 1997)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행위자들은 아내에게 전통적인 성역할을 기대하면서 아내가 가사일과 양육을 책임지고 자신들에게 복종하기를 원한다. 또한 이들은 아내의 행동에 대해 높고 경직된 기대 수준을 설정한다. 만일 아내가 자신들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면 폭력을 행사한다(장희숙, 2003).

“저는 기억이 그렇게 끊기지는 않아요.... 오히려 집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사례 H).

“집에 와 있을 때, 딱 퇴근해서 갔을 때 아무 것도 안 되어있고 아내도 없고 그러면 화나죠. 거의 다투는 원인도 거기 있어요. 술 먹지 마라. 밖에 나가지 마라. 밖에서 술 먹고 돈 찾아서 가져다니다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허탈해요.”(사례 F).

“집사람이 집 비우고 그 다음 날 들어 올 때는 항상 술에 취해 있었어요.”(사례 C).

가정폭력행위자들은 상당수가 아내에 대해 의심을 하고 이로 인해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은 아내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은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불안한 마음과 분노감정을 함께 느낀다. 가정폭력행위자들은 아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일종의 ‘역할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아내가 목적 없이 돌아다닌다는 생각이 들거나 자신의 기대와 어긋날 때에

는 어김없이 아내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와 둘이 나갈 때는 좀 꾀제제하게 하고, 혼자 누구 만나러 갈 때는 왕비처럼 하고 나간다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는 거예요‘다른 남자하고 갈 때 팔짱을 끼고 가던데 엉덩이 살랑살랑 흔들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열받겠어요.”(사례 J).

“종로에 사는 선배가 전화해서 ‘니 와이프가 왜 자꾸 여기 와서 배회 하대 근데 ‘세종’이라는 데가 원래 성을 매매하는 장소예요”(사례 J).

“저녁에 식구가 밥 해놓고 기다리면 제일 행복 할 거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될 적에는 또 영뚱한 생각하게 되요”(사례 F).

“아니 뚜렷하게 그런 목적이 있으면 몰라도 괜히 쓸 데 없이 나가서 돌아다니면 못 믿는다는 거죠 자꾸 생각나니까”(사례 F).

### 성격적 특성

가정폭력행위자들이 폭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인의 성격적 특성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설명하는 성격적 특성으로는 내성적이고 고지식하며 융통성 없음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표현을 좀처럼 하지 않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특히, 이들이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한 경우에조차도 정서표현을 하기 보다는 혼

자서 삭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더 이상 참지 못할 경우에 수위가 차면 그 때에서야 분노표출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가운데에는 스트레스를 술로 해결하려고 한 사람들도 있었으며, 이는 가정폭력 행위자들이 알코올과 약물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가정폭력 행위자의 67%가 알코올을 남용하고, 남용하였을 경우 폭력을 통해 아내에게 더 심한 상해를 입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알코올 섭취로 인해 가치판단 능력이 손상되고, 억제하려는 의지가 약화되면서 인간의 난폭성이 분출되어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이론을 지지해준다(김예정, 2001) 소수의 경우지만 누군가와 대화를 시도해보려고 하거나 그 원인을 생각해보는 경우도 있었다.

“아휴 옛날에는 나도 잘 나갔었는데.. 친구들에게 돈 빼인 것을 생각하면 울화통이 터지고자금은 식구가 한푼 두푼 주는 것으로 살다보니답답하고 또 말하면 ‘니가 나가서 돈 벌어라.’하고. 모욕을 주니까.. 식구가... 욕을 하고 하니까... 제 자신이 쉽고 미칠 거 같아 어디다 말도 못하고. 그래도 상담을 하면서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했어요.”(사례 D).

가정폭력행위자들의 성격적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특성 가운데 ‘충동성’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잘 생각해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보기 보다는 ‘욱하는 짐짓’으로 급하게 행동하거나 술에 의존하는 특성을 나타내며 이내 후회하기도 한다.

“성질이 나면 욕하는 게 좀 있지... 그래 놓고

바로 후회하지. 육할 때 그냥 육지거리 하고 한 대 때리고 바로 후회 하고 뒷감당 못하고(사례 A).

“어떨 땐 소리도 질러보고 어떨 땐 나가서 한 잔 먹고 들어와서 쓰러져 자”(사례 F).

### 환경적 요인

가정폭력행위자들의 환경적 특성을 살펴볼 때, 몇몇 가정폭력행위자들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편모 아래서 자랐거나 방임되어 자라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집안 형편이 어려웠거나 이로 인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해야 했던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가정에서 폭력 상황을 목격하며 성장한 경우도 있었고, 또한 어떤 행위자의 경우에는 폭력이 당연시되었던 군대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누이들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거의 나가서 생활하고. 저는 어릴 때 거의 혼자 집에 있었어요”(사례 J).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어머님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학교를 중학교학년 때 일찍감자 포기했어요 그 전에는 신문도 돌렸고...”(사례 J).

“불안하지만 그것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자식이 많이 있었지만 저를 특별히 또 이뻐해서 아버지한테 매달리고 그러면 멈추시고 할머니 말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듣고

제가 그러면 들으시고 멈추셨어요(사례 E).

“군대에서 폭력 문화가 있었으니까.... 그때 우리는 공병이었는데 계속 파견을 나갔었어요. 5일마다 갔었는데. 주로 공사 일을 했지요. 도로 내고.. 다른 건물도 짓고요.. 갔다 오면서 고참들이 졸병들에게 동네 매점 가서 술을 사오라고 했어요. 고참들이 술을 좋아했는데 작전지가 산골짜기여서 술을 구하기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장에 오셨다가 한 번씩 면회를 오면 용돈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술을 사가곤 했어요 선배들에게 개인적으로 당하지 않았지만 단체로 당했지요 또 선배들이 돈을 많이 빌려갔는데 갚지 않았지요(사례 C).

또한 이들은 폭력 당시 자신이 처한 생활상의 어려움 즉,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폭력을 행했음을 보고하기도 한다.

“그건 돈 때문이지 다른 거는 아니고.... 돈 끊어질 때”(사례 A).

“막막하죠. 온 몸이 아파 일은 밤대로 못하지. 애는 있지.. 애도 매일 징징거리면서 울기나 하고. 진짜 암담하더라고요.”(사례 F).

### 폭력 당시의 감정들

가정폭력행위자들의 가정폭력 당시의 감정은 분노감, 자제력 부족, 창피함의 세 개 범주가 발견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행위자들은 폭력을 행할 당시의 감정들에 대해 복합적으로 설명한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감정들 가운데에서 이들이 가장 크게 느꼈던 감정은 '분노감'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극도로 화가 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들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 어떤 행위자는 이러한 자신의 행동을 '자제력 부족'이라고 명하기도 한다.

"이혼을 할 때 공장에 와서.. "봉급을 왜 안가지고 오나고" 제가 얼마나 무안하고 황당하겠어요. 그러더니 욕하고 가더라고요. 혼자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데 쫓아와서.. "너는 이혼만 생각하나고, 니가 왜 병원비를 계속 내고 다니냐고.. 니가 막내면서 다 내고 다니냐고" 7월 달에도 어머님 욕을 하면서 "미친년이지 성한 년이냐고. 니 애비가 너한테 뭐 해준 게 있나고" 집안 식구들을 다 욕하는 거예요. 누님까지 싸잡아서 욕하고. 하지 말라고 했지만 계속 연기풀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뺨 때리는 거 하고"(사례 J).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수 있는 자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순간이 그렇지 않으니 한마디로 자제력 부족 같아요"(사례 E).

이렇듯 강한 분노감에 폭력을 행하는 가정폭력행위자들은 분노감과 동시에 '창피함'도 느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의 창피함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하나는 폭력피해자인 '아내'에 대한 창피함이고 다른 하나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창피함임을 알 수 있었다.

"좀 창피하고. 부끄럽고 서로 그런 것 있죠.. 내 일 눈뜨면 어떻게 보려고 하나 싶은 거"(사례 E).

"왜냐하면 둘이어서 그랬다면 몰라도 주위에 다른 사람들도 있고..."(사례 C).

이 밖에도 그들은 폭력을 행할 당시를 떠올리며 그저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담담하게 느꼈음을 보고하기도 했다. 즉, 감정이 개입될 만큼의 여유도 없을 만큼 폭력이 충동적이고 급격하게 이루어졌다고 설명하였다.

### 가정폭력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변화된 점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범주화 결과 가정폭력 행위자들의 가정폭력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변화된 점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제력이 생김, 정서 표현방식의 변화, 분노감정의 정화, 사고방식의 변화, 행동방식의 변화 등 5개 범주로 구분되었다. 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를 통해 개념을 보다 상세화 하였다.

###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제력이 생김

대부분의 가정폭력행위자들은 특히 예전과는 다르게 스트레스에 대한 자제력이 커졌음을 보고하였다. 즉, 화는 나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한다거나 조용히 앉아서 명상을 하는 식으로 조금 더 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조금이라도 뭐하면 참을 수 없었는데... 지금은 한 번 두 번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제력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사례 J).

“옛날의 저 같았으면 필요 이상으로 자꾸 돈 달라 그러면 그냥 화내고 소리를 질렀겠죠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사례 F).

“일단은 제 마음을 먼저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화를 낼 수 있는 걸 억제를 좀 시켜 가지고 이 렇게. 지금도 제가 화가 많이 나고 그러면 혼자 조용히 앉아서 명상을 하고”(사례 J).

### 정서표현방식의 변화

가정폭력행위자들이 폭력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눈에 띄게 변화했음을 자각한 부분이 바로 정서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정서와 관련하여 이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정서표현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즉, 예전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혼자 삽하는 식의 대처를 했던 반면에 집단 상담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들은 스트레스를 쌓아놓거나 혼자 해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학습하게 되었다. 이들은 그 때 그 때 일어나는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고 당

당한 행위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면서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정서표현에의 시도를 하게 된 것이다.

“아직까지는 ‘기쁘다’ 표현도 그렇게 많이 못 하고, 사랑한다는 표현도 많이 못해요.” “조금은 있죠. 그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죠.”(사례 F).

“이제는 쌓일 일도 없고 쌓이면 내가 손해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니까 스트레스 쌓이면 수명 단축되고 일찍 늙고 병들고 그런 걸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걱정거리.. 뭘 잊어버렸어도 그냥 끌내야지 그 잊어버린 거 때문에 속 썩이고 그러면 더 손해라는 것을 파악을 해서”(사례 E).

“사랑한다고. 안아도 주고 선배 같으면 안기기도 하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할 때 때로는 받아들이기를 거부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교육을 받으면서 극히 뭐 해야 되는 행위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깐. 계기가 되고 떳떳하게 더 그 횟수가 늘어난 거 같아요”(사례 E).

표 3. 가정폭력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변화된 점

범 주	개념	응답 자수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체력이 생김	다시 생각하거나 명상을 함	6/10
정서표현방식의 변화	긍정적·부정적 표현을 적절히 하게 됨	10/10
분노감정의 정화	불신, 불안정, 원망 대신 긍정적인 감정이 생김	4/10
사고방식의 변화	스트레스 상황에서 돌려서 생각하거나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함 사고가 유연해짐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함	6/10 5/10 2/10
행동방식의 변화	일시중단 사용함 적절한 자기표현과 자기주장을 함 가족과 상의하여 의사 결정함	7/10 2/10 2/10

### 분노감정의 정화

또한 집단상담 과정을 통해 가정폭력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들에게 내재되어 있던 분노감정 또한 많이 줄어들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음의 불안정, 불신, 원망 등의 감정 대신에 긍정적인 감정을 보다 더 지각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워하는 감정이 반 이상.. 50% 이상 줄었죠. 또 섭섭한 감정은.. 그 전에는 많았죠..”(사례 F).

“내가 하자는 대로 안하고 거의 돌아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미운 감정만 생기더라고요 그 데 그게 없어지고 여기 나와서 상담 받고 그 감정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많이 줄더라고요”(사례 F).

### 사고방식의 변화

감정의 변화 뿐 아니라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사고방식이 예전에 비해 더 유연해졌음을 깨닫는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예전에 충동적이고 직선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했던 것에 비해서 현재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생각하거나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보기도 하는 식으로 보다 융통성 있는 사고를 하게 되었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설득시켜야 할 경우에 예전에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보다는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것에 비해 현재에는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노력한다.

“굳이 힘을 사용할게 아니라 머리를 써서.. 그 사람을 설득 할 수 있나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하게 되더라고요”(사례 F).

“내가 저 입장에 처했을 때 누가 나를 때리면 나는 어떻게 할까 생각하죠”(사례 E).

“전에는 뭐라고 그럴까.. 한번에 ‘이거는 잘못 되었어 그런 식으로 얘기 했는데 지금은 제 자신이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돼요 언어폭력도 폭력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같은 거면 한 번 더 생각을 해서..”(사례 H).

### 행동양식의 변화

가정폭력행위자들은 감정이나 사고의 변화뿐 아니라 행동상의 변화도 경험한다. 그들은 재교육과정에서 ‘일시 중단’을 비롯하여 폭력을 자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습득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한다. 자기표현이나 자기주장을 해야 할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표현하기도 하며, 자기 혼자 결정하기 보다는 가족과 상의하면서 점차 가족의 소중함도 경험한다.

“예전엔 제가 한마디로 좀 오기가 좀 있어가지고.. 제멋대로 하는 게 조금 있었어요. 어디 가고 싶은데 홀딱 가고 혼자 무슨 일 있으면 혼자 처리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상의하려고 하죠”(사례 B).

“글쎄... 큰 변화라고 할 순 없고... 내가 할 말을.. 남한테 싫은 말도 할 수 있다는 거..”(사례 E).

### 논의

본 연구는 가정폭력을 행하여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 4호 보호관찰과 7호 상담위탁을 받고 있으면서 최근 6개월 동안 폭력사용을 하지 않게 된 1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특성과 폭력중지 과정변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폭력행위자들의 폭력사용의 이유, 폭력을 행할 당시의 감정, 그리고 가정폭력이 줄어들게 된 과정에서 변화하게 된 점들에 대한 질적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본 연구결과의 의미와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가정폭력 행위자들이 가정폭력을 행하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이들이 폭력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로 대부분 '아내와의 갈등'과 관련된 내용을 가장 비중 있게 진술하였다. 이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아내의 잔소리나 비난으로 인해 폭력을 행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잔소리와 비난의 내용에는 자신이 의미 있게 여기는 가족에 대해 아내가 알아주지 않고서 비난조로 이야기하는 경우나 자신을 의심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의 친척과의 관계가 부부갈등을 유발한다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의 보고에 따르면, 부부간의 갈등이 클수록 남편의 폭력행동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의 폭력이 개인의 사회화나 태도들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부부 관계의 특성에 의해서 발생하기가 더 쉽다는 것을 말해준다. 아내와의 갈등 가운데, 가정폭력행위자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내와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이를 원만히 대화로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본인 스스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하였으나 어떤 경우에는 이를 부인의 탓으로 전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상대방을 탓하며(유태수, 2003; Davis, 1990)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특성이 있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행위자들은 아내와의 갈등 가운데에서 아내의 음주에 대한 불만이나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한 불만 등을 호소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음주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아내의 음주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엄격하다. 아내에 대한 이러한 불만으로 그들은 분노감을 느끼게 되며, 이는 결국 폭력행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들 가운데 몇몇은 아내에 대해 의심을 하고 이로 인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남편이나 아내의 외도는 다양한 갈등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문제임에 틀림없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그러나 가정폭력행위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이 아내의 외도에 대한 확증이 있기 때문에 의심하기보다는 불안한 마음이나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아내를 불신하고 의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가정폭력행위자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원인으로서 아내와의 갈등 뿐 아니라 본인의 성격적 특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부부간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는 성격특성은 부부갈등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수 있다. 이들은 내성적이고 고지식하며 융통성이 부족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 대부분이 정서를 적절히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절하게 정서를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서 삭히거나 참는 경우가 많았고 더 이상 참지 못할 경우에 한꺼번에 분노감을 표출하는 식으로 부적절한 정서표현을 해온 것이다. Freud 아래로 정서를 자연

스럽게 표현하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은 여러 가지 심리적, 신체적 질병을 야기 시키며, 다양한 정서를 담아두기 보다는 표현하는 쪽이 건강에 더 이롭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Fridlund, Newman, & Gibson, 1984; Pelletier, 1985). 이러한 정서표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하여 가정폭력행위자들의 성격적 요인 가운데 가장 주된 특성으로 파악된 것이 '충동성'이었다. 이들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잘 생각해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보기 보다는 '욱하는 심정'으로 급하게 행동하거나 술에 의존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또 이내 후회하는 등의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정폭력행위자들의 경우에 충동조절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과 의견이 일치한다(장희숙, 2003; Davis, 1990). 이에 이들을 위한 폭력방지 프로그램 개발이나 교육 시에 폭력 행위자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성격적 특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정폭력행위자들이 폭력을 행하는 원인으로서 이들의 환경적 요인 또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원가족이나 이들이 성장해 온 환경적 특성이 가정폭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이경순, 2004; 유태수, 2003; 장희숙, 2003)와 맥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가정폭력이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될 가능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폭력이 연루된 부부의 문제는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대를 이어 학습을 통해 또 다른 가족문제로 연결되게 되고 더 나아가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가정폭력행위자들이 폭력을 행할 때의 감정을 살펴본 결과, 이들이 가장 크게 느꼈던 감정은 '분노감'과 아내 및 주변 사람들에 대한 '창피함'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가정폭력행위자들은 극도로 화가 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분노감'과 '창피함'은 전혀 다른 정서처럼 보이지만, 상담 장면에서 종종 많은 내담자들이 나타내는 복합적인 정서의 쌍이라고 할 수 있다(Teyber, 2000/2006). 분노가 슬픔이나 고통과 관련한 1차적 경험에 대한 반응이라면, 창피함 혹은 수치심은 분노로 인한 고통을 끄집어 낼 경우에 나타나는 제 3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행위자들은 이러한 수치심으로 인해 더 강력한 분노감을 느끼고 이를 부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가정폭력행위자들과 관련된 기관 담당자들이나 상담자는 이들의 이러한 감정적 특성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들의 분노감 이면에 자리 잡은 고통이나 다양한 감정들을 다루어주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수치심 또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셋째, 가정폭력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변화된 점을 살펴본 결과, 가정폭력행위자들은 공통적으로 정서와 관련된 부분을 중요하게 언급하였다. 즉, 대부분의 가정폭력 행위자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자제력이 커지고 정서를 적절히 표현하게 되면서 가정폭력행위가 줄어들게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감정을 표현하거나 자기를 표현하는 행동은 스트레스를 직접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수정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으며(김인자, 1984), 부정적 감정들을 무시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신체가 과로하여 병이 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징후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듯이(이형득, 1983), 적절한 정서표현은 건강한 정신과 신체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폭력행위자들은 적절하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 생길 경우에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Ney, 1978). 이에 이들이 자신의 정서를 정확히 지각하고 이를 적절히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그들의 정신건강은 물론 가정생활에서도 안녕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이를 상담 장면에 적용시켜 볼 때, 상담자는 우선 가정폭력 행위자들이 중요한 사건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건강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Pennebaker, 1987) 그들이 스스로의 감정을 잘 표현하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다. 또한 이렇듯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우선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다(김정규, 1995).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이 줄어들게 된 원인으로서, 그들 내면에 쌓아놓았던 ‘분노감정’의 정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에게 내재되어 있던 불신이나 원망 등의 분노감정이 집단 상담을 통해 충분히 표출된 후에 분노감정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들 내부에서 또 다른 긍정적인 감정을 발견하게 되고, 이로써 가정폭력이 줄어들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감정의 변화 뿐 아니라 이들은 폭력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대부분 자신의 사고방식과 행동이 예전에 비해 더 유연해졌음을 보고하였다. 예컨대, 예전에는 충동적이고 직선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했던 것에 비해서 현재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조차 다양한 해결책을 생각하거나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보기도 하였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설득시켜야 할 경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하기도 하였다. 행동상의 변화로서, 화가 날 경우에 ‘일시중단’ 기법을 사용하거나 집단 상담을 통해 습득한 다양한 방법들 즉, 자기표현, 자기주장 등을 적절히 사용하였으며, 의사결정 시에 가족과 상의를 하기도 하는 등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폭력을 사용하는 원인과 폭력 당시 감정, 폭력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변화한 점 등으로 그들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가정폭력행위자의 특성 및 실태를 파악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이들의 특성과 더불어 폭력이 줄어드는 과정을 함께 살펴본 것은 이들의 폭력행위중지를 위한 상담이나 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 문제를 인식하는 신고 건수와 상담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도 가정폭력 상담조치를 살펴보면 피해자에 대해 “상담 후 귀가(2004년부터 ‘심리 정서적 지원’이라는 명칭으로 바뀜)”의 조치가 상당부분(2004년 61.6%, 2005년 59.1%)을 차지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여성가족부, 2005). 이러한 실태는 상담소의 대부분이 여성단체 등 NGO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어 수사나 적극적인 사법조치가 어려우며 가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가 더욱 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여성가족부, 2005). 이는 가정폭력방지 특례법이 개인의 복지나 권한 신장의 측면보다는 가족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가정폭력행위자 및 가족을 위한 보다 더 전문성 있는 상담체계 및 법적 체계가 확립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법적체계를 수반한 상담체계의 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가정폭력행위자들은 상담 형태보다는 사회봉사명령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폭력 행위자의 폭력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폭력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의 인지, 정서,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김현희(2006)는 가정폭력행위자들이 개인면접이나 집단 상담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폭력에 대해 통찰하며 객관적인 자아를 바라볼 뿐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는 긍정적인 행위자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교육적인 상담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가정폭력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하는 교육식의 상담은 이들 행위자의 폭력수준이나 성향, 학력 등의 다양성을 함께 고려하지 않는다면 부적합할 수 있다. 예컨대 가정폭력행위자 가운데 알코올중독이나 정신질환 등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가정폭력 행위자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들의 문제를 동시에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아무런 조치 없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행위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건조(2005)도 지적하였듯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정폭력행위자의 문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합한 보호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대상의 수가 10명으로 비교적 소수이며 모두 특정 지역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로써 전체 가정폭력 행위자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가정폭력행위자들은 심각한 폭력행위자라기 보다는 그 심각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폭력을 행하다가 배우자나 주변인의 신고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고 상담에 의뢰된 남성들이었다. 따라서 남편이 심한 폭력을 행사하지만 후한이 두려워서 신고조차도 할 수 없는 가정의 행위자들은 본 연구의 대상에서 빠진 셈이다. 추후에는 이러한 연구대상의 심각성과 관련된 특성은 물론 연령 및 상황적 배경도 함께 고려하여, 이들 행위의 특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주제는 그 필요성이나 중요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임에 틀림없으나 그 주제 자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질적 연구에서 살릴 수 있는 보다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추후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관련하여 행위자의 다양성에 따른 폭력중지과정에서의 차이분석 등과 같이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다양한 새로운 연구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참 고 문 헌

김미희 (2003). 가족 상담을 위한 아내폭력피해자의 자존감, 내외통제성 및 성역할 정체감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예정 (2001). 남편의 성장기 폭력경험, 심리적 특성 및 부부간 상호작용이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유숙 (1998). 가족치료-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김인자 (1984). 인간관계와 자기표현.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현희 (2006). 가정폭력 행위자의 보호처분에 대한 연구. 평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규 (1995). 게슈탈트 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 박경민 (2003). 살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2. 한국형 사 연구원.
- 보호관찰통계연보 (2006). 법무부보호국 관찰과
- 여성부 (2004). 가정폭력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여성부.
- 여성가족부 (2005).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여성가족부.
- 유태수 (2003). 가정폭력 행위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건조 (2005).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상담명령 교육자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순 (2004). 가정폭력 행위자 부부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형득 (1983). 인간관계훈련의 실제. 서울: 중앙적성 출판사.
- 장희숙, 정정호, 김예성, 변현주 (2003).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행위자 특성 및 유형 연구. 여성부.
- 주간동향, 2007년 2월 15일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시의 남편의 아내폭력 현황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Bowlby, J. (1984). Violence in the family as a disorder of the attachment and caregiving system. *American Journal of Psychoanalysis* 44, 9-27.
- Coleman, K. H. (1980). Conjugal violence: What 33men report.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6(2), 207-213.
- David, J. Livingston (2002/2003). 가정폭력 남성치유모델 [Healing Violent Men: A Model for Christian Communities] (최종수 역). 서울: 한국기독교 연구소. (원전은 2002에 출판).
- Davis, L. (1990). *Battered women: The transformation of a social problem* Sage publication.
- Dougals, M. A., Alley, J., Daston, A. P., Svaldi-Farr, J., & Samson, M. (1984). *Court-involved batterers and their victims: Characteristics and ethnic differences*. Paper Presented at the 92nd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Canada.
- Elbow, M. (1977). Theoretical considerations of violent marriages. *Social Casework* 58, 515-526.
- Fridlund, A. J., Newman, L. B., & Gibson, E. L. (1984). Putting emotion in behavior medicine: Discrete-emotion psychophysiology and its relevance for research and therapy. In C. Van Dyke, L. Temoshok, & L. S. Zegan (Eds.), *Emotions in health and illness*(pp.117-134). New York: Grune & Stratton.
- Gelles, R. J. (1998). Violence and pregnancy: Are pregnant women at greater risk of abus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3), 841-847.
- Gondolf, E. W. (1985). *Men who batter*. FL: Learning publications.
- Gottlieb, N. (1980). *Alternative social service for women* New York: Harper Colophon Books.
- Hamberger, L. K., & Hastings, J. E. (1986a). Characteristics of spouse abusers: Predictors of treatment acceptance. *Journal of Interpersonal*

- Violence, 1*, 363-373.
- Hamberger, L. K., & Hastings, J. E. (1986b). Personality correlates of men who abuse their partners: A cross-validation study. *Violence and Victims, 1*(4), 323-341.
- Maiuro, R. D., Cahn, T. S. & Vitaliano, P. P. (1986). Assertiveness deficits and hostility in domestically violent men. *Violence and Victims, 1*(4), 279-289.
- Martin, G. L. (1986/1998). 가정폭력과 학대 [Counseling for family violence and abuse]. (김연 역). 서울: 두란노. (원전은 1986에 출판).
- Morrison, K. M. (1997). A survey of massachusetts batter intervention programs predicting treatment completion Ph. D Dissertation, Antioch New England graduate school.
- Ney, F. I. (1978). Is choice and exchange theory the ke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0*(2), 219-233.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64-877.
- Patton, M. Q. (2002).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3r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Pelletier, K. R. (1985). *Mind as healer, mind as slayer*. New York: Delacorte Press.
- Pennebaker, J. W., Hughes, C. F., & O'Heeron, R. C. (1987). The psychophysiology of confession: Linking inhibitory and psychosomatic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781-793.
- Riggio, R. E., & Friedman, H. S. (1982). The intercorrelations of self-monitoring factor, personality trait, and nonverbal social skills.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7*, 33-45.
- Rosenbaum, A., & Bennett, B. (1988). Homicide and depress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3*, 367-370.
- Rosenbaum, A., & O'leary, K. E. (1981). Marital violence: Characteristics of abuse couples.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49*, 63-71.
- Satir, V. (1967). *Conjoint family therapy*. Palo Alto, California: Science and Behavior Books.
- Saunders, D. G. (1984). Helping husbands who batter. Social casework. *The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Work, 65*, 347-353.
- Sonkin, D. J., Martin, D. & Walker, L. E. (1985). *The male batterer*. New York: Springer.
- Skynner, A. C. R. (1976). *Systems of family and marital psychotherapy*. New York: Brunner/Mazel.
- Steinmetz, S. K., (1978). Violence between family members, *Marriage and Family Review, 1*, 1-16.
- Taylor, J. W. (1984). Structured conjoint therapy for spouse abuse cases. *Social Casework, 65*, 11-18.
- Teyber, E. (2000/2006). 상담 및 심리치료 대인과정 접근 [Interpersonal Process in Psychotherapy]. (장미경 외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2000에 출판).
- Walker, L. E. (1984). *The battered woman syndrome*. New York: Springer.

논문접수일: 2007년 10월 31일

수정논문접수일: 2008년 2월 10일

게재결정일: 2008년 2월 24일

## A Qualit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Violator

Myung Ok Lee      Jung-Hee Ha      Jeong-Min Park  
Chung Buk University    Hanyang University    Chung Buk University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violence takers. Specifically, this research was to verify the motivation of domestic violence, the emotions during domestic violence and the reasons for decrease of domestic violence. For these purposes, qualitative interviews with ten domestic violators who had been accused of domestic violence were taken. Then we analyzed these interviews using the theme analysis metho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main reasons why they do domestic violence were revealed to be three categories, namely, conflict with wife, the characteristics of personality, and environmental factors. Especially, conflict with wife was found to be most main problem. Second, the emotions during domestic violence were revealed to be three categories such as the sense of anger, short of self-control and shame. Third, the changes accompanying the decrease of domestic violence were found to be five categories, namely, increase of the power of self-control in stress situation, the change of emotion expression, the purification of sense of anger, the change of thinking style and behavior style. We discussed the role of professional counselor, and limit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Keywords : domestic violence, domestic violator, characteristics*